

우리가 이런 홀러넘치는 풍성을 경험하려면 두 가지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바로 '비움과 채움'입니다. 먼저 내 썬잔이 비워져야 합니다. 썬잔을 비운다는 것은 내 속의 죄를 자복하고 털어내는 회개를 말합니다. 또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합니다.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성령님의 임재를 가리킵니다. 내 안에 성령님으로 충만할 때 비로소 인생 또한 충만케 되는 것입니다.

혹 지난 한 해 아무런 여유 없이 쪼여짜듯 힘겹게 인생을 살아오진 않았습니까? 그것은 대부분 상황이 어려워서가 아닙니다. 내 죄의 썬잔이 제대로 비워지지 않았기 때문이요, 성령으로 충만치 못한 연고입니다. 다른 무엇보다 먼저 비우고, 채우세요. 회개하고 성령으로 충만해지세요.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매순간 이렇게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공동의 기도 | 다 같이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복되고 행복한 명절에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작년 한 해 주님께 받은 복을 세어보니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새해에도 주 안에서 홀러넘치는 인생을 살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가득 부어주셔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어떤 상황에서든 주님으로 충분하고 넉넉하게 하소서. 때로 우리 삶에 문제가 있을 지라도 늘 감사를 고백하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속에서도 먼저 믿음으로 감사하게 하시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누리게 하소서.

이 가정에 무엇보다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길 원합니다. 집안 어른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부모들의 사업과 일터를 살피주시며, 자녀들의 앞길과 장래를 인도하여 주소서. 무엇보다 이 가정을 통하여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이웃과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가정 천국'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또한 오늘도 고향을 찾지 못하는 이웃들이 있사오니 그들을 주께서 위로하시고, 하늘의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소서. 우리 가정의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 송 | 새찬송가 28장 | 다 같이

¹절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측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²절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 하시려고 보혈 흘려 주셨네

³절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빛진 자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맘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치소서 아멘

주기도문 | 다 같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2022년 설 날 가 정 예 배

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요 15:7

담임목사 이 종 규

강원도 춘천시 후석로 311-1

☎ 033-242-4812, FAX) 033-242-4813

<http://www.chpower.org>



예식사 | 인도자

설 명절을 맞아 온 가족이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독상기도 | 다 같이

여호와와 함께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와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와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민 6:24-26)

사도신경 | 다 같이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 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 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 송 | 새찬송가 301장 | 다 같이

¹절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피 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행통하게 하시네

²절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³절 주님 다시 뵈을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벼를 낱도 멸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대표기도 | 가족 중에서

사랑하는 저희 가족들이 기쁨으로 모여,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 온 지난 해의 삶을 감사 드리고, 소망중에 새해를 맞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 가족이 지난 해에 겪어야 했던 기쁨과 슬픈, 희망과 절망을 고스란히 내려놓고 2022년 새해를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시작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다시 없이 소중한 이 한 해를 정성껏 사용하려 하오니 저의 가족에게 건강과 힘을 주시고 또한 주님께서 저희 가족을 축복하시어 올 한해도 늘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시옵소서. 각 가정의 간절한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선�하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봉독 | 시 23편

¹여호와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²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쉼 만한 물 가로 인도하시는데도다 ³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데도다 ⁴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⁵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⁶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와 그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설교 | 축배, 홀리넘치는 은혜

인생을 사는 이들을 보면 크게 두 부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쥐어짜는 사람과 홀리넘치는 사람입니다. 먼저 ‘쥐어짜는 인생’을 사는 사람은 마치 물 한 방울 얻기 위해 마른 행주를 쥐어짜듯 힘겹게 살아갑니다. 당연히 짜증과 불평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게 됩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 ‘홀리넘치는 인생’을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내면에 하나님의 풍성함이 있습니다. 어떤 형편에서든지 평안과 여유를 잃지 않고 살아갑니다.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늘 넉넉한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쥐어짜는 인생과 홀리넘치는 인생, 우리는 어느 쪽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힘겹게 살았음에도 자신의 삶이 홀리넘치는 인생, 곧 하나님으로 인하여 충분하고도 넉넉한 인생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5절) 이렇듯 주께서 베푸시는 은혜의 식탁에 초대되면 그 풍성함으로 인하여 어떤 형편에서든지 충분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올 한 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향연의 식탁, 축복의 삶으로 초대하십니다. 우리에게 홀리넘치도록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힘겹게 겨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좋은 것으로 홀리넘쳐 세상에 넉넉히 베풀고, 나누며 살기 원하십니다. 이는 성경이 증거하는 바입니다.

하나님은 ‘필요’를 넘치게 주십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빌 4:19)

하나님은 ‘축복’을 넘치게 주십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 주리라”(눅 6:38)

하나님은 ‘기적’을 넘치게 주십니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열두 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마 14:20)

하나님은 ‘성령’을 넘치게 주십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요 7:37-38)

하나님은 ‘은혜’를 넘치게 주십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고후 9:8)